DAOL 다올투자증권

Market Weekly

check ME up!

Macro

Event

2025년 12월 3주차

리서치본부 투자전략팀

조병현 투자전략 | bhcho@daolfn.com

Ⅰ. Weekly Review *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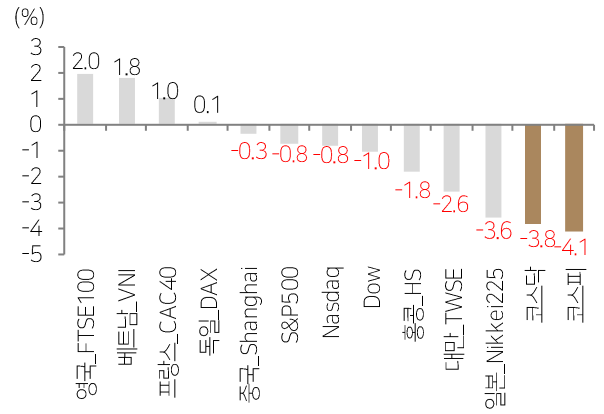
Ⅱ. 경제지표 Preview *3p*

Ⅲ.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4p*

Ⅳ. Key Chart & 핵심지표 *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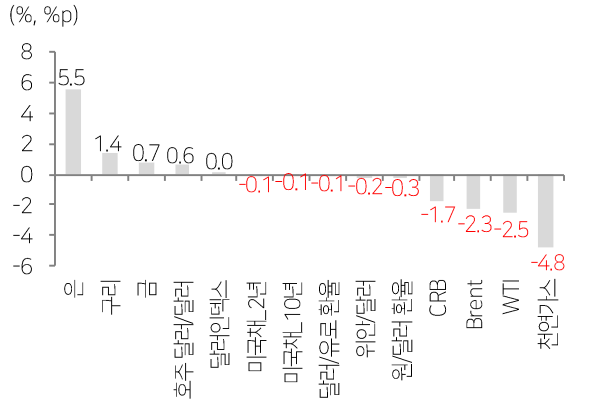
Ⅰ. Weekly Review

글로벌 증시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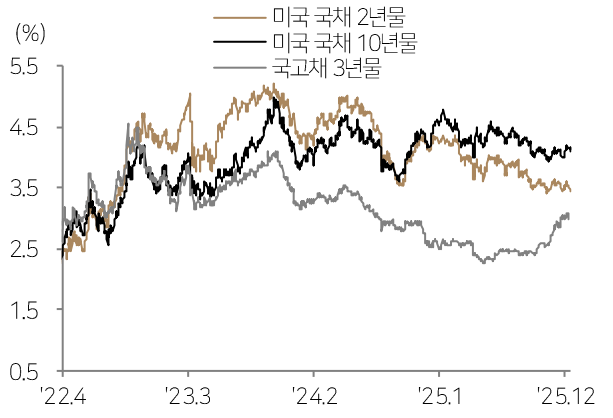
Note: 수익률은 12/12일 대비 12/18일 종가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글로벌 FICC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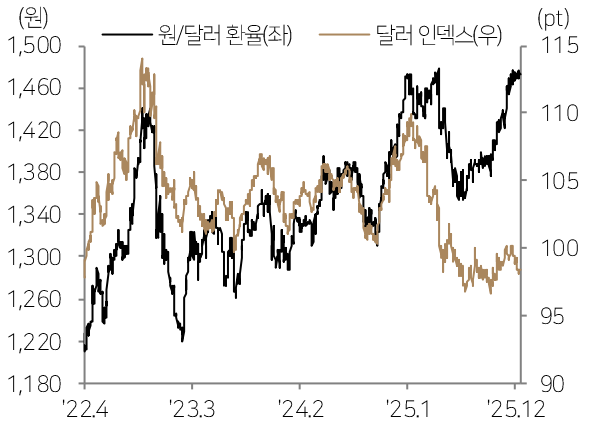
Note: 수익률은 12/12일 대비 12/18일 종가 기준. 미국 국채는 %p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채권 수익률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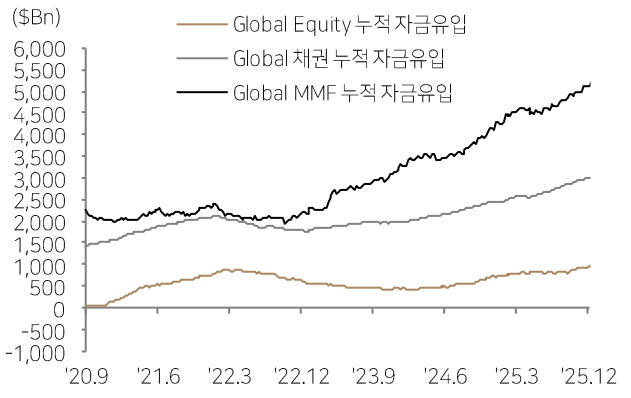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다올투자증권

달러 인덱스 및 원/달러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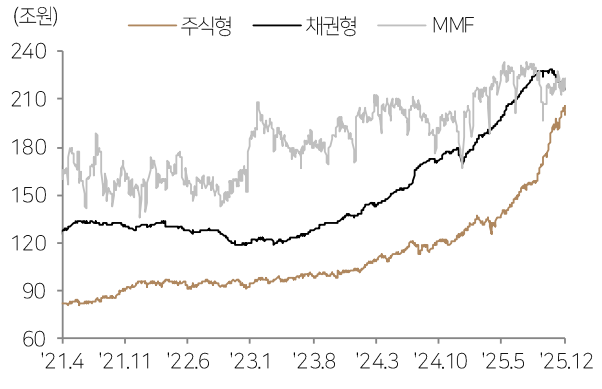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글로벌 펀드 플로우



Source: Refinitiv, 다올투자증권

국내 자금동향



Source: Check Expert,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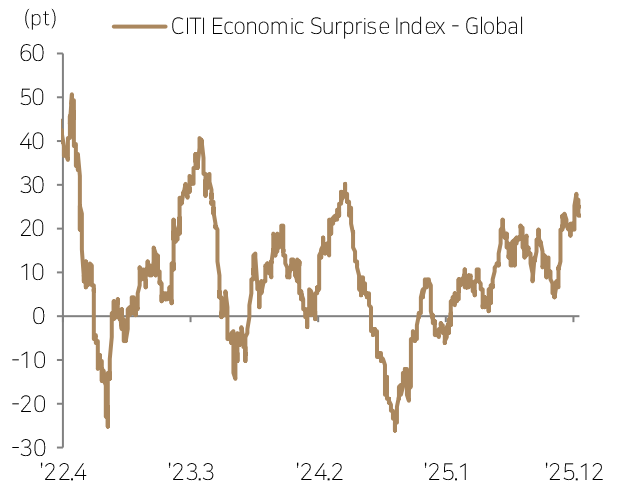
Ⅱ. 경제지표 Preview

- 셧다운 여파로 발표가 미뤄지고 있던 미국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될 예정. 컨센서스는 3.1%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GDP now는 3.5%로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음. 견조한 GDP 성장률은 펀더멘털의 강건함을 보여주지만, 현 시점에서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의 성장률이 발표될 경우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
- 일본 도쿄 지역의 12월 잠정물가가 발표될 예정. 상반기 대비 다소 낮아진 2.7% 내외에서 형성되고 있음 이번 주 BOJ 통화정책 회의 결과와 맞물려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필요

일자	국가/지역	일정 및 이벤트	단위	예상치	이전치
2025-12-22	미국	11월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 지수	Index	-0.2	-
2025-12-22	한국	12월 20일까지 수출/입	%yoy	-/-	8.2/3.7
2025-12-23	미국	3분기 2차 GDP 성장률	%qoq	3.1	-
2025-12-23	미국	3분기 2차 GDP 물가지수	%qoq	2.6	-
2025-12-23	미국	11월 설비가동률	%	75.9	75.9
2025-12-23	미국	10월(잠정) 내구재 주문	%mom	-1.4	0.5
2025-12-23	미국	11월 광공업생산	%mom	0.1	0.1
2025-12-23	미국	11월 설비가동률	%	75.9	75.9
2025-12-24	미국	12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Index	-	-15
2025-12-24	미국	12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	Index	91.9	88.7
2025-12-24	한국	12월 소비자심리지수	Index	-	112.4
2025-12-26	일본	11월 소매판매	%yoy	1.1	1.7
2025-12-26	일본	12월 도쿄 소비자물가지수	%yoy	-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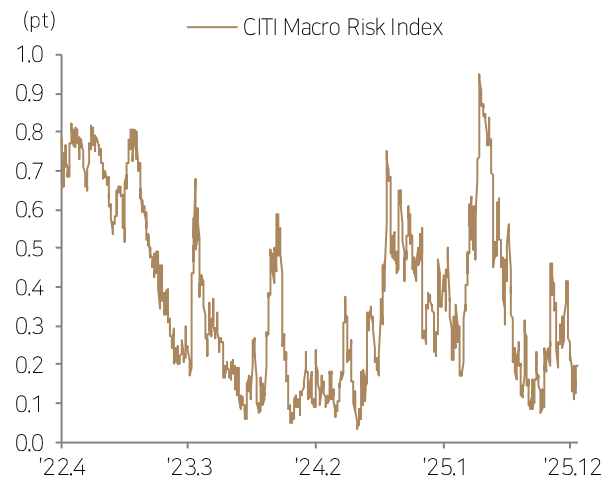
Note: 경제지표 발표일정은 한국시간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III.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일자	국가/지역	중요도	일정 및 이벤트	내용
12/23	한국	중	한국은행 금융안정회의 및 금융안정보고서 발표	▪ 한국은행은 매월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지만, 분기 마지막(3/6/9/12월)달은 통화정책 결정 회의가 아닌 금융안정회의로 진행 ▪ 해당 회의는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외환 시장 등 금융시장 각 부문에서 형성되고 있는 리스크 요인들을 점검하고 금통위에서의 종합적인 정책 결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 ▪ 최근 환율 등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대한 한은의 태도를 회의와 함께 발간되는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12/24	일본	하	BOJ 금정위 회의록 공개	▪ 지난 10월 BOJ 금융정책회의의 의사록이 발표될 예정.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경우, 향후 금리 인상 속도나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한 관심이 높게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위원들의 기존 논의 내용도 확인해 볼 필요
12/25	글로벌	-	크리스마스 휴장	▪ 휴장 일정: 미국 24(수) 오후장~25(목) / 한국 25(목) / 중국 24(수) 오후장~26(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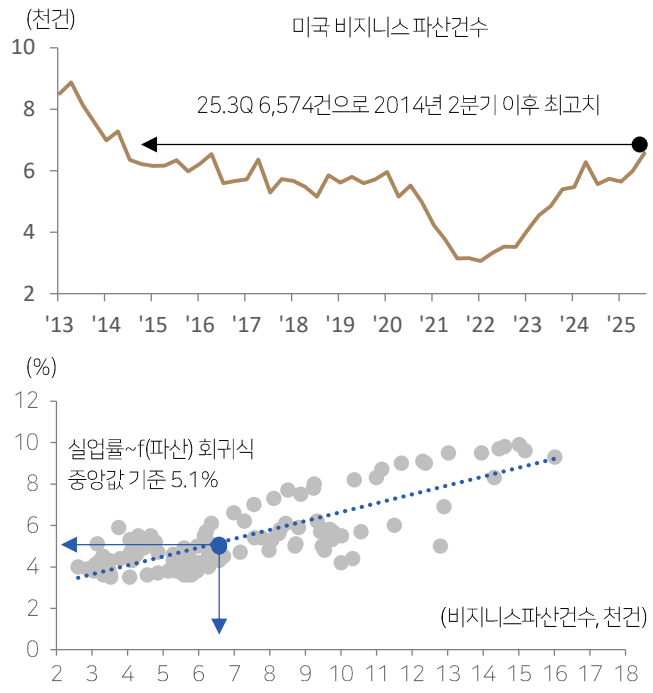
Note: 이벤트 발표일정은 한국 시간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일자	내용
금주 (12/15~12/18) 증시 동향	▪ KOSPI(-4.1%), KOSDAQ(-3.8%) 하락. KOSPI는 에너지(+4.9%), 화학(+7.5%), 비철,목재등(+11%)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통신서비스(-0.5%), 디스플레이(-5.2%), IT가전(-10.6%) 업종 하락. 브로드컴과 오라클의 실적 발표 후, AI 수익성 우려가 부각되며 4,000선을 하회. 마이크론 실적 기대감에 반도체 업종이 반등하며 4,000선을 일시 회복했으나, 오라클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핵심 투자자(블루아울캐피털) 이탈로 AI 과잉투자 우려가 심화되고, LG에너지솔루션의 공급계약 해지 소식에 2차전지 업종이 급락하며 3,994pt에서 마감 ▪ DOW(-1.0%), NASDAQ(-0.8%), S&P500(-0.8%) 하락. 브로드컴·오라클발 AI 수익성 우려와 경기 둔화 지표에 하락 출발한 증시는, 블루아울캐피털의 오라클 프로젝트 이탈로 AI 과잉 투자 공포가 심화되며 기술주 약세 및 전통주로의 순환매가 지속. 이후 마이크론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예상치를 밑돈 11월 CPI 발표에 인플레이션 안도감이 형성되자, 기술주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 마감
차주 (12/22~12/26) 증시 전망	▪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와 단기물 중심 자산매입이 발표됐지만, 시중금리는 유의미한 하락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 오라클, 브로드컴 등의 영향으로 AI 산업에 대한 불안도 잔존하고, 1,480원 부근의 고환율 경계심도 높아 지는 등 다양한 부담 요인들이 공존. 인플레 상승이 제한되고 연준 정책이 금리 상단을 제어할 수 있다는 확신이 형성될 때 분위기 반전이 시도될 것. 1월 FOMC와 다음 연준 의장 확정 등이 영향을 미칠 이벤트. 마이크론의 호실적은 일단 반도체 산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소재로 판단되나, 테크 기업들의 투자 지속과 수익성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기간도 필요 ▪ 실적 전망 등 펀더멘털 여건 변화는 없는 만큼 현 구간은 연 중 가파른 상승에 대한 반작용 격인, 다소 넓은 폭의 기간조정 국면이라고 판단. 2026년 실적 전망을 기준으로 3,800pt대 이하는 충분한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 경험적인 연말/연초효과까지 고려하면 1월 상반월까지 헬스케어, 필수소비재 등 경기에 무관하거나 방어적 업종이 선호될 수 있으나. 이후 반등 국면에선 여전히 AI벨류체인에 대한 관심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Note: 수익률은 전주 금요일 종가 대비 금주 목요일 종가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Ⅳ. Key Chart & 핵심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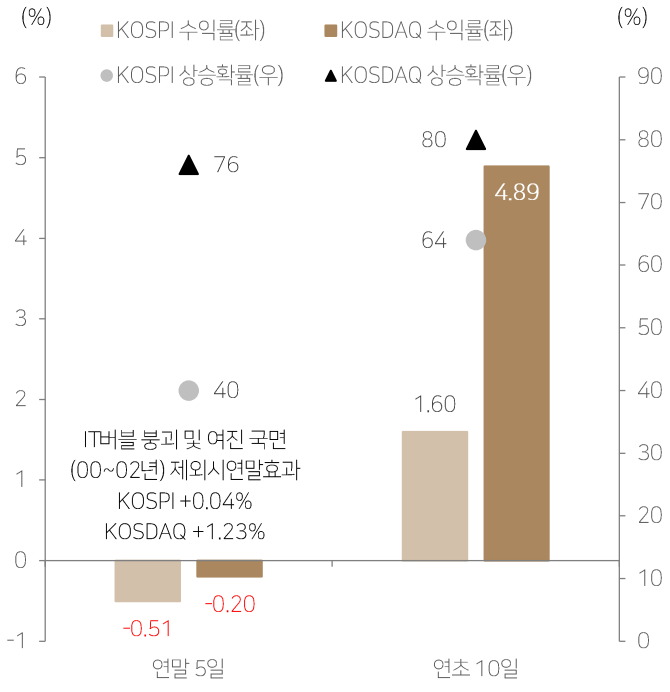
미국의 기업 파산 증가는 추가적인 고용 둔화의 원인. 연준의 완화적 정책기조 필요성을 뒷받침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 주 중 미뤄지고 있던 BLS 고용지표가 발표. 10월 -10.5만개 감소, 11월 +6.4만개 증가의 일자리 변동이 있었고, 실업률은 4.6%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 연준의 정책 연속성에 대한 판단을 하기 모호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우위
- 직접적인 노동데이터는 아니지만 함께 볼만한 지표가 미국 법원행정처의 비즈니스 파산 건수. 분기별로 집계되는 파산 데이터는 최근 3분기 수치가 확인됐는데, 6,574건을 기록. 이는 2014년 2분기 이후 가장 많은 파산 건수가 기록된 것. 보다 거슬리는 움직임은 고금리 상황에서도 한동안 정체되고 있던 파산 이벤트가 올해 1분기 이후 다시 증가세가 가속화되는 양상이라는 점
- 파산 건수 수준을 실업률과 단순회귀로 매칭시켜 보면 실업률의 추가적인 상승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고용 시장의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가져가려는 연준의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2000년 이후 평균적인 연말/연초 효과: 연초효과 중심 그리고 KOSDAQ 중심으로 발현되는 경향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 다양한 매크로 이벤트들의 영향권에 있어 증시의 단기 방향성도 전망이 어려움. 복잡한 상황이지만, 연말/연초 효과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
- 2000년 이후 연말 5거래일과 연초 10거래일의 수익률과 상승 확률을 계산해 보면, KOSPI는 연말 수익률 -0.51%, 상승확률 40%로 연말효과에 대한 기대값이 높지 않음. 그러나 연초 10거래일은 평균 1.6% 수익률과 64%의 상승확률을 기록해 연초 국면에 대한 기대감이 우위
- KOSDAQ의 경우는 조금 다른 분포. 평균 수익률이 -0.2%로 나타나지만, 상승확률은 76%에 달함. 수익률이 낮은 것은 2000년말 IT 버블 붕괴 구간이 포함되어 있어 5거래일 -21%의 수익률 영향이 큼. 중위수 기준으로는 +1.2% 상승. 연초 효과는 +4.89%의 수익률에 80%의 상승률을 기록해 더욱 고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음.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말/연초 효과는 연초, 중소형주 중심으로 발현된다는 점을 인지해 둘 필요

www.daolfn.com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본사영업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27층

DAOL 다올투자증권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투자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복제, 인용, 변형할 수 없습니다.